

747 보랏빛 비전(7% 경제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내세운 새 정부 출범으로 경제회생 기대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국내 소비 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 쉽지 않은 국제 환경으로 인한 우려가 복잡하게 얽힌 상태에서 시작한 2008년이 마무리되었다.

그 결과는 기대했던 경제 회복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고 국제 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전 세계가 견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세계적인 경제 대가들도 마땅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과거에 개발된 해법들을 다양하고 강력하게 제시하고 실행하지만 경제가 개선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각종 해법들이 잘 먹혀들지 않는 것은 과거와 달리 이전 전 세계가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 정보들은 순식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켜 정책 시행자들의 기대대로 움직여지지 않게 된다. 이제 정책

입안 수행자들은 고도의 집단 사회 행동심리학을 근거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젠 2~3년 전의 지식이나 경험, 방법 등은 거의 모두가 쓸모 없게 되어 버렸다. 그야말로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의 바퀴에 깔려 버리고 말 것이다. 깊은 산 속에서 50년 이상을 문혀 살다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홀로 버려진 노인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특히 지난 2~3년 간의 변화의 속도는 측정하기도 어렵고 눈치 채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지난해에 있었던 촛불 집회, 원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았던 것, 환율 급등, 세계 금융업의 위기, 미국 자동차 빅 3의 파산 일보 직전 등의 일들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다.

항상 희망은 있다. 우리가 찾기만 한다면.



장금순 전무
바이엘코리아(주)
동물의약사업부

그러나 그런 사태는 일어났고, 그 와중에 묻지마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깡통을 차게 되어 당장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려면 우선 그 변화를 감지해야 한다. 그 변화를 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100년 전 한 러시아 학자가 연구하여 발표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물고기를 우리만큼 잘 먹지 않는 서양 사람들이 많이 먹는 물고기 중의 하나가 '파이크'라는 물고기다. 펄떡이는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에 나오는 이름이다.

이 물고기는 매우 공격적인 육식성이다. 이 물고기를 큰 수조에 넣고 수조 안에 작은 물고기를 함께 넣었더니 평소대로 아주 활발하게 잡아먹었다. 다시 수조 안에 투명한 유리병을 넣은 다음 작은 물고기들을 모두 그 안에 넣었더니 이들을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유리병에 막혀 먹이를 잡아먹을 수 없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을 살려 끊임없이 공격했다. 나중에는 주둥이가 상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시도했다. 결국은 좌절감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그 파이크가 배가고파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투명 유리병을 조용히 빼내어 이전 작은 물고기들

을 마음껏 잡아먹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 경험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이 파이크는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다. 자기가 굶어 죽어 가고 있고 눈 앞으로 먹이가 될 물고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데도.

결국 그 물고기는 굶어 죽고 말았다. 과거의 경험에만 빠져서 세상이 변한 것을 눈치 채지도 못하고, 심지어 죽을 지경인데도 자신의 본능마저 죽여 버린 이 불쌍한 물고기,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현상이다.

과거의 큰 성공이나 실패가 지금도 똑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하는데 적용해야 한다. 그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원칙을 지키고 깨어있을 것을 권유하고 싶다.

우리가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게 되었다 해서 태만하면 안 될 것이다. 그 여유를 즐기되 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원칙대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나치게 초조해 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을 가다듬고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한 다음 또 다른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렵다 한들 70~80년대 보다 어려우랴? 체중이 너무 나가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현대인들이지 않은가.

새해에 초심으로 돌아가 원칙을 지키며 다시 출발하면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항상 희망은 있다. 우리가 찾기만 한다면. 